

떠오르는 STARTUP 늘봄마인드

“게임으로 마음 치유”...심리 콘텐츠로 청년 고립 해소

친근한 게임·캐릭터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소 AI 기반 감정 분석...개인 맞춤형 심리 케어 실현 ‘포포레’ 프로그램 개발...상담 부담 낮추고 소통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돌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인터넷·모바일·SNS 등 사회적 관계망 기술이 발전했지만, 현실의 인간관계는 반대로 급속히 단절되고 있다.

개인적인 삶의 추구에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사회적 키워드가 강화됐다.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은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의 특정한 공간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명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로 통칭되면서 등장했다.

이후 ‘은둔형 외톨이’가 한국은 물론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지난 2024년 발표한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만 19~34세 은둔 청년은 약 53만 7863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청년층의 5.2% 수준에 이른다.

보고서는 은둔 청년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983만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성향에 따른 문제나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저하시켜, 생산 인구의 질적 붕괴로 이어지면서 결국 복지, 고용, 보건, 교육, 주거 등 거의 모든 사회정책과 직결되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 문제까지 직결되기 때문이다.



송지연 대표

“늘봄마인드(대표 송지연)는 친근한 게임과 캐릭터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로 뛰어든 스타트업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자신의 마음에 ‘안녕’을 건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명으로 지난 2024년 업계에 첫 발을 디딘 늘봄마인드는 심리치료 콘텐츠 기반의 AI 서비스 개발로 감정을 분석하고 개인화 된 심리 콘텐츠를 제공한다.

송 대표는 먼저 국내에서 ‘상담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과 ‘사회적 낙인·평판 우려’로 나뉘면서 실제 이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 같은 여건이 높은 심리 상담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송 대표는 편안하면서도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인 어드벤처 게임에 상담 기법을 접목했다.

이후 ‘포포레’(For me forest. 나를 위한 숲)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상담자가 플레이



늘봄마인드는 높은 심리 상담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편안하면서도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인 어드벤처 게임에 상담 기법을 접목한 ‘포포레’(For me forest. 나를 위한 숲)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어가 되고, 게임 속 캐릭터가 내담자(상담을 받는 사람)이 된다.

플레이어가 게임 속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고 각 캐릭터가 전하는 고민들을 상담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 속 캐릭터들이 전하는 질문들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질문들로 구성돼 플레이어의 고민이 자신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포포레’의 대표 캐릭터는 ‘이끼’다. 송 대표는 이끼가 자라는 형태, 색, 크기가 모두 달라도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끼의 다양한 형태처럼 남들

과 달라도 우리만의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늘봄마인드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돌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을 게임을 통해 전하고 관련 경험들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늘봄마인드의 “나답게 살아가는 청년의 안녕”을 위한 응원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 IR 피칭 데모데이 우수상 수상에 비롯해 지난해 인공지능산업융합단 AI 제작 지원사업 선정 등 성과를 나타냈다.

또 전국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송지연 늘봄마인드 대표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아픔과 고민을 겪고 있다. 이들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힐링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며 “마음을 돌보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과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에 나가기”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돌보는 경험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차근차근히 이어가며 안녕을 전하는 여정을 함께하는 늘봄마인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송지연 늘봄마인드 대표는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 졸업기업으로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운영하는 창업성공패키지 과정을 마무리했다.



송지연 대표는 사람이 읽기 쉬운 구조와 간결한 문법을 지닌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 기초책 공동저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늘봄마인드는 지난해 ‘2025 광주 ACE Fair’(콘텐츠 전문 전시회)에 참가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라운지’ 출시

세련된 외관에 천연 가죽 시트 등 실내 고급감 강화

현대자동차가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 일렉트릭’의 최상위 트림 ‘캐스퍼 일렉트릭 라운지’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출시되는 ‘캐스퍼 일렉트릭 라운지’는 지난해 출시된 아웃도어 감성의 크로스 모델과 달리 ‘나만의 공간’을

컨셉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전용 디자인이 적용된 라디에이터 & 범퍼 그릴에 프로그래밍된 타입의 Full LED 헤드램프와 LED 리어램프가 기본으로 탑재되고, 측면부도 라운지 모델 전용의 17인치 알로이 휠과 미디어 메탈릭 클레

딩 & 사이드 몰딩이 적용됐다. 실내에는 동급 차량 중 유일하게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됐으며, 니트 소재의 헤드라일닝과 선바이저가 더해지면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프리미엄 스피커가 새로 추

가되고, 기존에 선택 사양으로 운영했던 1열 풀플딩 시트, 2열 슬라이딩 & 리클라이닝 시트, 루지저 보드가 기본 적용됐다.

캐스퍼 일렉트릭 라운지는 49kWh의 NCM 배터리를 탑재해 295km(17인치 휠, 복합 기준)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했으며 30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여유로운 도심 주행 능력을 갖췄다. 정승기 기자



캐스퍼 일렉트릭 라운지 내장



캐스퍼 일렉트릭 라운지 외장

삼성전자,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과 파트너십

삼성 아트 스토어에 20세기 미술 거장 작품 34점 구성

삼성전자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과 파트너십을 맺고 삼성 TV 아트 구독 서비스 ‘삼성 아트 스토어’에 ‘SFMOMA 컬렉션’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서부 최초의 현대 미술관 SFMOMA는 미국 서부 최초의 미술관으로, 20세기 회화와 조각, 사진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SFMOMA 컬렉션’은 앙리 마티스, 잭슨 폴록, 프리다 칼로, 피에트 몬드리안 등 20세기 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 34점으로 구성됐다.

또 미국 팝아트의 거장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웨인 티보의 작품도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전 세계 115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삼성 TV 전용 예술 구독 서비스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아트 바젤 등 주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800명 이상 작가들의 5000점 이상의 방대한 작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TV 라인업에서 만날 수 있는 ‘삼성 아트 스토어’ 서비스를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주도하며 거실을 예술 작품으로 가득한 갤러리로 바꿔 나가고 있다.

예술 작품 감상에 특화된 ‘더 프레임 프로’ ‘더 프레임 TV’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RGB, OLED(S95H 모델), 네오 QLED 및 일부 QLED TV 시리즈까지 확대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